

누문동에 기업형 임대주택 2670가구 짓는다

〈광주시 북구〉

광주시, 뉴스테이 시범사업 ... 2018년 입주 원도심 활성화·전국 최초 상업지역 재개발

도심 공동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던 광주 북구 누문동 일대가 새롭게 변모한다. 광주시는 2일 북구 누문동 일대 11만 1000여㎡에 2670가구의 중소형 아파트를 비롯해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New Stay)을 짓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올해 1월 국토부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

산층 주거혁신 방안'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이번 사업은 신규 택지개발이 아닌 원도심 개발이라는 점과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 정비사업이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최초의 재개발 사업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2018년이면 입

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누문 구역은 도심 공동화에 따라 지난 2009년 재개발을 위한 주택조합이 설립됐으나 사업성이 약해 번번이 시행자를 구하지 못해 개발이 무산됐다. 상업지역을 재개발하려면 전체 면적의 10% 이상을 상가로 개발해야 하지만 도심 공동화로 상가 분양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시행자가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상업지역을 재개발할 경우 상가로 확보해야 할 면적을 줄일 수 있게 된데다, 뉴스테이 제도가 도입돼 장기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시행자가 나타났다. 광주시는 특히, KB부동산신탁이 전체

분양 물량 중 2000가구를 책임지기로 한 데다 최초 8년 임대 후 분양, 연 5% 임대료 상승 제한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제안해 음에 따라 개발에 따른 수익성 확보가 충분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500여 가구의 지역 주민(조합)들은 일반 분양의 80% 수준에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돼 주택마련 부담이 크게 줄었다. 안용훈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오는 19일 조합원 긴급총회를 거쳐 사업 시행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를 재생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덧없음에 대하여

신형철 칼럼



“얼마 전 어느 여름날, 나는 과묵한 한 친구와 아직 젊지만 이미 명성을 날리고 있던 한 시인과 함께,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반기는 듯한 시골길을 산책한 적이 있다. 그 시인은 주변 풍경의 아름다움에 대해 연신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서 환희의 기분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는 이 모든 아름다움이 결국엔 소멸되고 말 거라는 생각, (중략) 겨울이 오면 그 자연의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없을 거라는 생각에 착잡한 심정이었던 모양이다. 달리 말하면, 그에게는 그가 사랑하고 찬미했던 모든 것들이 덧없음의 운명 때문에 제 가치를 손상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프로이트의 짧은 글 '덧없음'(1915)의 첫머리다. 모든 것들이 '덧없음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던 시인을 회고하며 글은 시작된다. 덧없음, 독일어로는 페어갱리히카이트(Verganglichkeit)라고 읽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트랜스젠스(transience)라고 발음되는 단어다. 아마 한자어로는 무상(無常)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우리말로로는 덧없음, 국어사전을 보니 덧없음은 세 가지 뜻을 갖는 것으로 돼 있다. 첫째,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시간이 매우 빠르다. 둘째, 보람이나 쓸모가 없어 헛되고 허전하다. 셋째, 갈피를 잡을 수 없거나 근거가 없다. 이어지는 대목에서 프로이트는 시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었으나 동의할 수는 없었다고 적는다. 물론 모든 것은 소멸한다. 그 어떤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도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시인의 말이 사실이기에는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슬퍼만 하는 것이 옳은가, 하고 그는 반문한다. 오히려 그 덧없음으로 인해 아름다움의 가치가 더 증대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은가? 말인즉슨,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정신분석가답게 말하고 있다. 대상들의 운명

이 실제로 어떤든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심리적 태도를 취하느냐, 라고.

그래,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인이 그럴 수 없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왜 낙관적으로 자연을 향유하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왜 그럴 수 없었는가 말이다. 프로이트는 역시나 정신분석가답게 그 시인이 자연을 즐길 수도 있었는데 모종의 마음의 작용으로부터 그것을 '방해받았다'라고 말한다. 아름다운 자연의 덧없음에 생각이 미치자 그 시인은 언젠가 그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로 인해 겪어야 할 애도의 고통을 미리 맛보고 말았다는 것, 그런데 마음은 예상되는 고통을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미리부터 그 대상에 대한 향유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나는 그 시인의 '방해받은' 기쁨에 대해, 애도의 고통을 피하려고 미리 울조라들어야 했던 그 마음의 쓸쓸한 조심성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아름답고 위대한 많은 것들이 덧없이 사라진다. 건물이 사라지고 사람이 사라진다. 전통과 명성이 사라지고, 신념과 우정이 사라진다. 나이를 먹고 보니 라고 건방을 떨 나이드 아난데 나는 이 세상 많은 것들의 덧없음을 점점 더 자주 느낀다. 그리고 그 덧없음에 대해 환멸을 느낀다. 그 걸 눈치 채어 어떤 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환멸은 인생감정공부의 마지막 단계지. 자네는 이참에 좀 더 성숙해질 모양이군." 그러냐. 그렇다면 이 '성숙한 환멸'은 앞으로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덧없다, 그러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프로이트의 낙천주의에는 끝내 동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그 글을 최근에 다시 펼쳤다.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문장을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었다. "그 시인과 대화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 해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1년 후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빼앗아 가 버렸다." 이번에는 조금 울컥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1차대전이 가져온 저 압도적인 덧없음을 경험하고서도 끝내 시인에게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었구나. 그렇다고 갑자기 낙천주의자로 변신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의 환멸이 조금은 덧없어졌다.

〈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



“자동차밸리 조성, 청년들의 희망입니다”

2일 오후 광주시청 1층 시민숲 행복드림실에서 '자동차밸리 조성 공감토크'가 열린 광주시장과 정찬용 자동차밸리 추진위원장, 지역 교고·대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채무액 증가율 17개 광역단체중 최다 전남은 빚 감소율 2위 새정치 임수경 의원

광주시의 채무액 증가율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반면 전남은 빚 감소율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별 채무잔액 현황'(지난 2012~지난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의 채무잔액은 9246억 원이다.

광주시 채무액은 지난 2012년 7917억 원에서 2013년 8336억 원, 지난해 9246억 원으로 증가했다. 채무잔액 증가율은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16.78%(1329억 원)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이 빛은 광주시가 순수하게 진 채무로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지방공기업과 각종 공사·공단이 가진 빚까지 합하면 채무잔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전남은 지난 2012년 1조4411억원에서 2013년 1조2728억 원, 지난해 1조1409억 원으로 채무잔액이 20.63%(3002억 원) 줄었다. 이는 경남(25.93%)에 이어 두 번째로 빚을 가장 많이 줄인 지자체다.

임수경 의원은 "지방채무는 지방세수의 감소와 복지지출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부채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예산의 국고보조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부가세의 지방소비세로 전환비용 상향조정 등 세입확대책이 필요하고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적용하는 등 재정운용의 방안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현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삶 개선한다

18개 마을 생활불편사항 점검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확충

광주시가 개발행위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불편사항 개선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달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마을지구 18개 마을과 독립가옥을 상대로 생활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한 뒤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사결과 좁은 진입도로, 상·하수도 미설치,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회관·경로당 미설치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진입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자치구 등에 조속히 확충하도록 했다. 특히 내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이 같은 요구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우선 순위로 신청하도록 했다. 정부 사업으로 반영되면 지방비 부담 분 중 50%를 시비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도시 확산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3년부터 지정, 현재 광주 행정구역면적 501.20㎢의 49.3%인 247.01㎢가 관리되고 있다. 광주

의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은 집단마을지구 18개 마을 277가구 550명과 독립가옥 257가구 529명 등 총 534가구 1079명이다. 광주시는 주민지원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올해까지 148개 사업, 646억원을 들여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상·하수도 정비, 배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2006년에는 20가구 이상 198개 마을 4.9㎢를 해제해 거주민 재산권이 회복됐다. 2010년부터는 누리길 조성·여가복지 조성·전통문화사업 등 17개 사업을 실시해 환경·문화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라식 vs 라섹

라식 수술

각막결편을 만들고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통증이 적고 시력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라섹 수술

각막 상피를 벗긴 후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라식에 비해 통증이 다소 있고 시력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충격과 안구건조증에 강한 수술 방법입니다

◎ 사람의 눈은 손가락의 지문처럼 모두 같지 않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눈에 맞는 다양한 수술이 가능한 시력교정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소아안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백운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새생명탄생



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열병원.com ☎(062)368-1700